

## 제3회 양돈인의 날 행사에서 농림부 장관상 수상한 삼성양돈 이상열 사장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에 무창돈사 시설을 갖춘 대규모 양돈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열 사장은 양돈전문 경영지도자로서 돈사 내부시설의 개선과 자동화를 통해서 비육돈의 출하일령의 단축과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번식률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고급육 생산기술의 보급을 통해서 다수의 대일수출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및 방역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커 지난 6월 18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회 양돈인의 날 행사에서 다른 3명의 양돈가와 함께 우수 양돈농가에 수여하는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상열 사장은 지난 95년 이 지역에서 10수년간 양돈장을 경영해 오던 5명의 지역 주민과 함께 삼성양돈영농조합을 결성한 이래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현재의 위치에 총 80억원(개인자금 및 정부지원금 포함)을 투자하여 지난 96년에 부지 9,000평에 건평 약 5,000평(2층 돈사 7개동) 규모로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97년에 건축공사 시작, 98년 3월에 돼지를 입식하여 현재에는 모든 1,000두 규모의 대규모 양돈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돈전문 경영지도자이다.

삼성양돈단지는 한동에 모돈부터 비육돈에 이르기까지 1,500두를 수용할 수 있는 돈사가 7개로 되어져 있었으며, 전체 시설은 무창돈사로 사료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개 돈사마다 2층으로 건축하였다. 돈사바닥은 1층은 스크래퍼 시설로, 그리고 2층은 슬러리 시설로 설치하였다.

돈사는 각 동별로 13m의 간격을 두고 건축하였으며, 계단식으로 돈사를 배치하여 아주 효율적으로 돈사를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분뇨처리는 노는 액비화로

처리하고, 분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주변의 과수원 등에 제공해 주고 있었다.

### 전체 7개돈사를 이사 6명과 직원 1명이 각자 책임지고 관리해

농장관리는 이상열 사장을 포함해 6명의 이사와 함께 직원 3명이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전체 7개로 구성된 돈사를 1동씩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다.

1개 돈사에는 보통 1,500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돈사별로 분만에서부터 비육까지 일괄생산체제로 설치되었고, 각 돈사별로 이사와 1명의 직원이 1동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사무관리와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각자 맡은 자기 돈사에 대해서는 생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각자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구매와 판매 등과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형태를 띠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렇게



삼성양돈단지 전경, 전체 2층짜리 돈사 7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각 돈사는 2층으로 되어 있다.

함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돈사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각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사들은 보통 부부가 함께 사양관리를 하고 있다.

종돈은 상원축산의 돼지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천봉 농장과 선진종돈 등에서 들어온 돼지가 나머지 3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도 상원축산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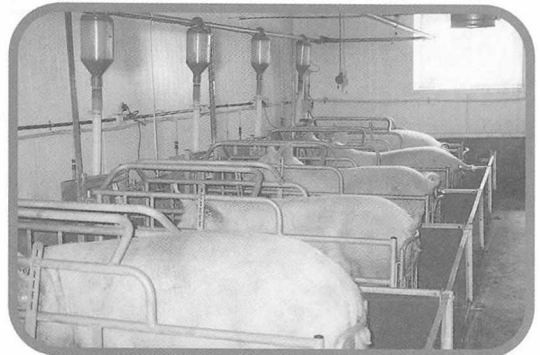
### 수시로 회의 통해 각자 의견 조율

삼성양돈 이사들은 이상열 사장 주도하에 1주일에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이외에 수시로 회의를 하여 농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사양관리는 모든 돈사가 올인, 올아웃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뺏치별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 또한 분만은 사후조치를 해주는데 돈사내 온도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해 줌으로 큰 사고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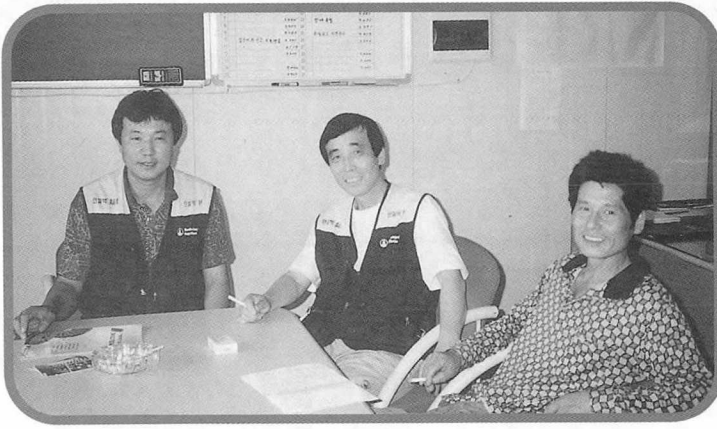
돈사내 사양관리 이외의 모든 작업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공동작업은 될 수 있으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돈 이유는 18~20일 경에 시키고 있으며, 1뺏치당



분만사와 자돈사 내부 전경, 전체 돈사는 무창돈사로 설치되어 있다.

모든 6두를 수용하는데 보통 1뺏치당 68두 정도 분만하여 60두를 포유하고, 50~54두 정도를 이유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곳에서는 70~80두를 이유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모돈이 이유시기가 빠르므로 대리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



▲삼성양돈단지 이상열 사장(중간)과 정교원 이사(우측), 신현찬 이사(좌측), 삼성양돈단지는 이상열 사장을 중심으로 5명의 이사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

유 두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한편 농장 기록관리는 지금까지는 수기로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전산관리를 정P&C 연구소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양돈장을 건립하여 돼지를 생산한지 얼마되지 않아 삼성양돈단지의 전체 사양성적은 정확한 데이터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상열 사장은 농장 PSY가 24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출하는 전량 경기도 김포에 있는 우석식품을 통해 수출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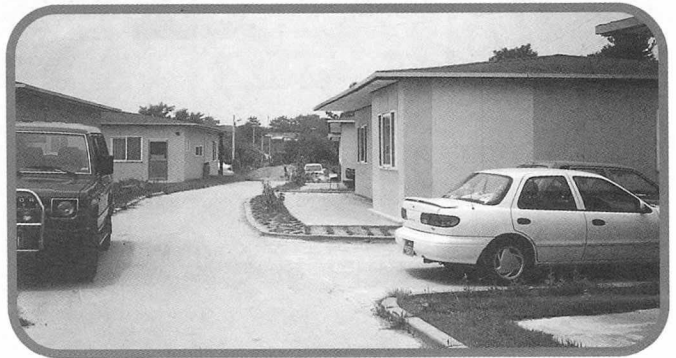
### 서로간 벤치마킹 통해 생산성 향상 꾀해

예전에 각자 양돈장을 경영하던 지역 주민 6명이 양돈단지를 결성한 후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농장경영에 대한 참여농가들의 의식수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양돈단지 사업에 참여한 6명의 이사들은 종전의 10여년간 경영하던 나름대로의 경영방식을 과감히 개선하여 보다 과학화된 경영기법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각자의 경영 노하우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예전에 비해 방역관리가 한결 수월해졌으며,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 등 예전의 습관을 모두 털어버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판매와 구매 등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관리

사항들이 공동으로 이루어 짐으로 양돈단지에 참여한 이사들은 자기가 맡은 사양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각자 자신이 관리하는 돈사의 사양성적이 남에게 뒤떨어지는 경우 이를 분석하고, 더욱 노력하여 농장 생산성을 높이는 등 벤치마킹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관리사 전경, 이상열 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들은 모두 관리사에 입주해 거주하면서 농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함께 거주함으로써 모든 필요한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열 사장은 다른 여느 양돈단지와 마찬가지로 이 양돈장도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투입된 상태여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사장은 자금상환 계획을 일반자금과 정부정책자금으로 분류하고, 정확한 이자와 원금상환 등 향후 자금집행과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상열 사장은 지금은 양돈장이 가동되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5년이 지난 후에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해 있는 양돈단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양돈단지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을 자신하고 있다.

지금 이시간에도 이상열 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들은 각자 다른 이사들이 관리하는 돈사를 벤치마킹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취재 : 이병석> **양돈**